

박태원 소설의 사유방식과 글쓰기의 형식

백 지 혜 *

I.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이 글은 1930년대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문체를 살펴봄으로써 서사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다층적인 성격을 다시금 재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태원 소설은 소설의 텍스트 내부에 이질적인 언어 실험이 감행되고 있었는데, 텍스트의 지속력을 방해하는 이러한 논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박태원이 열어놓은 문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태준은 이미 1933년 문장사에서 발행한 『小說家 구보씨의 일일』의 발문을 쓰면서 박태원의 소설을 두고 “그의 독특한 끈기있는 치렁치렁한 장거리 문장, 심리고 사건이고 무어든 한번 이 문장에 걸리기만 하면 일사를 가리지 못하고 적나하게 노출된다.”¹⁾라는 평을 하였다. 박태원의 장거리 문장은 새로운 기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의 문단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는데, 안희남의 평가 역시 이태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안희남은 박태원 소설이 사상의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감을 먼저 표하였다. “그는 꺾도 사상을 기반하는 것이 미약한 것 같다”²⁾는 안희남의 불만은 박태원 소설에 ‘기교’가 과도하게 앞서 있다는 전제가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 한성대학교 강사

1) 이태준, 「跋」,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장사, 1933(이 글의 인용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 샘, 1999, 343면).

2) 안희남, 「작가 박태원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99, 351면.

“제아무리 최선의 기교일지라도 정말은 그것을 박태원씨 혼자서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가가 다 함께 체득하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시된 것을 미루어 보아, 당대 소설에서 박태원의 문학적 기교에 대한 문인들의 기대 역시 고조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교’의 문제는 비단 박태원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상과의 우정을 표한 조용만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 박태원과 이상에 있어 언어적 수사³⁾의 문제는 생활에 밀착된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간의 박태원 연구는 작가의 사상에 견주어 리얼리즘⁴⁾과 모더니즘⁵⁾의 양분화된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월북 작가인 박태원을 문학사의 한 부분에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제기된 박태원 소설의 문장에 관한 지적들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작품 자체의 미학적 성과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박태원의 문장과 그의 작가적 성향의 추이를 천착하는 황도경과 천정환의 논문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유관하다.

황도경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집중하여 논한다.⁶⁾ 이 논문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종결어미를 분석하면서, 구보의 관념적 인식세계와 행동성의 결여, 머뭇거림의 특성을 지적해내거나, 인물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들이 명사화되거나 부사화되어서 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접속사의 빈번한 사용에 이르러서는 의사전달을 위한 문장이기보다는 인물의 마음의 추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3) “이상과 태원은 둘 다 언변이 좋아 만담·재담을 잘 하므로 어느 회합이고 두 사람이 나타나면 웃음바다가 됐다.”라는 조용만의 평이 그것이다. 조용만, 『30년대의 문화 예술인들』, 범양사, 1988, 136~137면.

4) 김윤식, 「박태원론 -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관련 양상」, 『한국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정현숙, 『박태원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5) 최혜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3.

6) 황도경, 「관조와 사유의 문체」,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것이라는 주장들을 통해 ‘구보’의 사유가 이 소설을 견인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황도경식의 분석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작품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박태원 소설 전반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는 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 표현, 묘사, 기교⁷⁾에 대해 자의식이 분명하였던 박태원의 작가적 성향을 텍스트의 문체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 작품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을 몇 가지 열거만 해 놓은 채, 작가의 의식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가 의도하였듯이 ‘작가의 의식이나 작품의 주제에 관여된 의미 생산의 원점’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천정환⁸⁾의 논문은 철저하게 방법론적인 면에 천착하여 그의 독특한 문장 쓰기의 모습이 소설 내의 여타 서사적 자질을 포괄적으로 주재한다는 면을 밝히고 있다. 서사 단위의 분절과, 서술자의 태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한 그의 논문은 서사의 미시적 단위인 문장의 구조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더러, 기법과 문체가 소박한 의미의 스타일로 고정되는 박태원의 후기 소설들을 수용자 중심의 문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문체를 통한 작가의 정신세계까지 진단하는 것으로,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문체적 일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문체적인 것은 박태원 소설의 문체가 단순히 스타일이나 기교에 머물러 이를 수법의 차원으로만 해석하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형상화한 주제의식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박태원의 스타일이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 시간성을 해체한다는 이 글의 결론은 당대의 모더니즘 작가가 갖는 특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건은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문체적 연구의 궁극적 지향점은 작품들이 무엇을 향해 정향되어 있고,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나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 일것이다. 박태원은 이상이 운영하였던 다방 제비를 소재로 하여 그대로 소설화(「제비」)하거나, 종로구 관철동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7)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조선중앙일보』, 1934. 12. 17~12. 31.

8) 천정환, 「박태원 소설의 서사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작품(「보고」)을 썼으며,⁹⁾ 그리고 경성의 모습을 산책하면서 그 위치적 감각을 복원해 놓은 소설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 풍경』)을 여러 편 썼다. 즉 박태원 소설이 지향하는 특수한 공간적 감각 역시 그의 문장을 해석하는 다채로운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 작가가 집중적으로 묘사한 특정 공간과 작가의 문체적 성향은 보다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 공간 제시가 정밀할수록 특이한 자질의 총량은 늘어날 것¹⁰⁾임이 분명하다. 문체는 이러한 묘사의 총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느냐일 것이다. 그의 소설에서는 제목의 명시화, 이질적인 신문 담론과의 모습등은 소설의 선조적인 서사 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여담들이 수사학 체계의 작동이 생산해 낸 담론의 대상¹¹⁾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분석 대상은 「방란장 주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 풍경』이다. 이 작품들은 박태원 소설의 실험적인 문체가 의미화되었다고 평가되는 동시에, 다방, 도심지의 경성, 빨래터와 같은 특정 공간을 배회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으며, 주인공의 사유를 지속시키는 힘과 문장적 특성이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를 가능케 한다.

-
- 9) 이경훈, 「이상과 박태원」, 『이상·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이경훈은 박태원의 소설을 통해서 이상 소설에 대한 감각을 복원한다. 박태원의 제비와 보고를 통해 이상이 운영한 제비다방과 33번가 유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실증적이기도 하나,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극대화될 오류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10) Mieke Bal, 『서사란 무엇인가』, 한용환 역, 문예출판사, 1999, 172~175면. 미케발은 스토리에서의 공간 기능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배경이요, 다른 하나는 행동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공간은 ‘행동의 장소 the palce of action’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장소 acting place’라는 뜻이다.
- 11) 여담은 장황한 즉흥곡, 우연히 떠오른 멋진 생각, 스토리 라인의 상실, 황당한 연상, 기억의 공백과 장애, 갑작스러운 단절로 귀착되는 표류, 어쩔 줄 몰라 내뱉는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 했지?”라는 말 등을 의미한다. 린다 사브리리는 그간 비평계에서 도외시되었던 ‘여담은 이야기 자체를 참견하려는 메타담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Randa Sabry, 『담화의 놀이들』, 이충민 역, 새물결, 2003, 14면 참고.

따라서 이 글의 2장은 「방란장 주인」에 나타난 장거리 문체가 지니는 의미를 통해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실험적 성격을 조망한다. 3장에서는 이질적인 담화의 투입이 지시하는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체적 특징이 다양한 담론을 조성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소문의 역동적인 모습과 합일된 소설들을 살펴봄으로써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문체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동시에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II. 휴지의 필요성과 긴장과 이완의 문체

「방란장 주인」은 박태원의 ‘장거리 문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그야 주인의 직업이 직업이라 결코 팔리지 않는 유화 나부랭이는 제법 넉넉하게 사면 벽에가 걸려 있어도”라는 서두로 시작해서 “방란장의 젊은 주인은 좀더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중략) 고독을 그는, 그의 전신에, 느꼈다.”라고 맺을 때까지 단 하나의 문장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소설은 방란장이라는 다방을 경영하는 주인의 생활 고와 ‘마사예’라는 여급에 대한 단상들이 서사의 중심축임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자기 스스로만을 지시하는 양상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폐쇄적 상태에 머무른다¹²⁾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 소설이 오직 전적으로 방란장 주인의 독백으로만 일관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꼭다점과 예술전용구락부라고 표현되는 다방에서 방란장의 주인은 이 방란장을 개업하게 된 이유를 하나씩 떠올린다. 수년간 애용하여 온 축음기와 레코드를 준 ‘자작’, 칠 팔개의 재떨이를 가져온 ‘만철’, 난초 한 화분을 가져오면서 방란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수경선생’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방란장 주인은 가난한 다방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예술가들이 넘쳐 나는 이 다방의 모습과 인근에 개업한 ‘모나미’ 다방의 하루 이십원 수입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이 소설의 미학이 앞에서 언급한 논문의 지적대로 폐쇄적인 언어 사용일 수 있으나,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방란장 주인의

12) 천정환, 앞의 논문, 46면.

독백만으로 파악될 수 없는 지점들이 혼재된다.

늘 하는 그 모양으로 잠깐 동안은 숨도 쉬지 않고 물끄러미 천장만 쳐다보아도, 물론 이제 이르러 새삼스러이 머리에 떠오를 제법 방도라 할 방도가 있을 턱 없이, **문득** 뜻하지 않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빗쟁이들의 천속한 얼굴에, 그는 거의 순간에 눈살을 찌푸리고서, 누구보다도 제일에 그 집 주인놈 아니꼬아 볼 수 없다고, 바로 어제와 아침부터 찾아와서는 남의 짐에가 버티고 앉아, **무슨 수속을 하겠느니 어찌느니 하고** 불손한 언사를 횡통하던 것이 생각나서,¹³⁾ (강조: 인용자)

방란장 주인은 ‘문득’ 뜻하지 않게 떠올려진 빗쟁이들의 얼굴과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수속을 하겠느니 어찌느니 하고’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상기한다. ‘문득’이란 부사어로 이 소설의 서사는 선조적인 진행을 방해 받는다. 즉, 완전히 삭제되었던 새로운 서사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후 방란장 주인은 빗쟁이들의 얼굴과 더불어 ‘마사예’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마사에는 수경선생의 하녀로 있던 젊은 여자로서 이미 방란장 주인은 그녀의 월급을 ‘이백원’이나 밀려 있는 상태다. ‘문득’ 떠올려진 빗쟁이들의 얼굴로 이제 서사는 방란장의 생활고를 걱정하는 주인공의 모습만을 그려내지 않는다. 방란장을 경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마사예’는 그의 삶에 또다른 의미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 소설에는 총 4번의 ‘문득’이란 부사어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주인공의 연상은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① 문득 어찌면 ‘수경 선생’이 자기와 ‘마사예’와 사이에, 무슨 의혹이라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러한 것에 새삼스러이 생각이 미치자, ② 문득, 만약에 ‘미상에’로서 아무런 이의도 없는 것이라 하면, 아주 이 기회에 둘이 결혼을 하여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중략), 그는 새삼스러이 그렇게도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기 자신이 느껴졌고 ③ 문득 일주일 이상이나 ‘수경선생’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 생각나서 또 무어 소설이라도 시작한 것일까, 하고 ④ 문득, 황혼의 가을 별판 위에서 자기 혼자로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고독을 그는, 그의 전신에, 느꼈다.

13) 앞으로 이 글에 쓰인 박태원 소설의 인용은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한국근대 장편소설대계』 3, 태학사, 1988에 근거한다.

주인공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문득’이라는 부사어가 등장할 때마다 소설은 각기 다른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득’이란 부사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도 생각의 단절을 요구한다. 소설에 무수히 사용된 썬표의 기능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이어진 접속사와 ‘~하고’와 같은 단어의 중첩은 생각의 ‘문득’이라는 부사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휴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역동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소설 내부에는 방란장 주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사에의 목소리,¹⁴⁾ 마사에와 방란장 주인을 이어주려는 늙은이의 목소리¹⁵⁾ 등도 동시에 삽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득’이란 부사어가 등장할 때마다 소설은 연애문제(①) - 경제적 무능(②) - 소설쓰기(③) - 고독(④)에 이르는 각기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주제와 주제 이탈의 경계 자체가 소멸되면서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언표와 언표의 행위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래 어떤 것이 주제고 어떤 것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혼잡한 구성은 「방란장 주인」을 두고 새로운 실험 소설이라고 말하는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작가 특유의 수사법이 과잉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담론에 대한 일탈 행위는 다방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도 무한히 사유의 여행을 즐기는 작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래 이야기를 잇는 통제된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질은 서사를 방해하는 ‘여담’¹⁶⁾의 성격이 강한데, 불필요한 텍스트의 구사에서 비롯된 이러한 오류들은 오히려 중심 노선의 엄격함을 완화하고 독서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방란장 주인」에 등장한 이야기들이 마치 톱뿌리가 뺏어 나간 것과 같이 치렁치렁한 느낌의 만연체로 존재하고 있음¹⁷⁾에도 불구하고

14) 우직한 시골 색시는 어쩌면 자기에게 무슨 크나큰 잘못이라도 있어, 그래 주인의 눈에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색시)

15) 무어니무어니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기회에 둘이서 결혼을 하라고, 자기는 애초부터 그러한 것을 생각하였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아름다운 인연에 틀림없다고, 만약 그가 직접 말을 꺼내는 것이 거북하기라도 하다면, 자기가 아주 이 길로라도 ‘미사에’를 만나보고 작정을 하여주마고,(늙은이)

16)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수많은 썬표와 부사어구의 삽입역시 텍스트의 과잉적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일탈적인 성격이기도 할 것이다.

17) 김상태, 「열려진 언어 속에 담긴 내면 풍경」, 『현대문학』, 1990. 4, 361면.

고, 그의 텍스트가 긴장을 잃지 않고 생생하게 읽힐 수 있는 이유는 부사와
 와 쉼표의 과잉이 의도하는 부조화의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방란장
 주인의 즐거리를 딱히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것도 이 점에 기인하고 있
 으나, 오히려 이 소설의 사유방식은 텍스트 내부에서 다양한 이야기의 틈입
 을 야기한다. 이러한 일탈들은 비단 「방란장 주인」에서만 들어나는 문체적
 특성이 아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역시 경성을 산책하는 구보의 시선
 과 맞물려 이질적인 담화의 틈입들이 자연스레 섞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III. 이질적인 담화의 틈입

앞장에서 제시된 「방란장 주인」에서 살펴보았듯, ‘쉼표’와 ‘부사’의 과다
 한 노출 등은 소설 내부에 다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여지를 마련해둔
 다. 서사의 선조적 진행을 방해하는 듯한 이러한 끊어 주기 효과는 오히려
 즐거리를 전복하며, 주인공의 서사와 역동적으로 합일됨으로써, 이야기를 끊
 임없이 재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격은 소설 내부에 다른 텍스트의 간섭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딱한 사람들』에 드러나는 제목 붙이기는 서사를
 분절화 시키며, 각 장의 제목들이 본문과 뚜렷한 연관성을 지니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제시된 것도 한 특징이라 하겠다. 소설에 삽입된 다양한 광고들
 은 주인공의 자의식과 연결된다. 운전수를 모집하는 광고와 신문배달부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주인공은 소설쓰기에 대한 열정을 되살린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이 구직에 대한 정열이 없음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인식으로 전
 환된다.

그러나 대어보는 소설을 세 개, 모조리 읽고, 그리고 다탄담배를 아까웁게 마즈
 막으로 한모금 뺀다음, 몸을 뒤쳐 그것을 재떨이에다 비벼서 꺾을때, 순구는 갑자
 기 자기가 실상은 직업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것이나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
 량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황망하게 그것을 부인하려고도 하였으나 그러나 순
 구는 자기가 구직문제와 마주 대하여 섰을때, 일찍이 정열을 가져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무리 싫어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전혀 순구가 자기자신을

속이기 위하여서의 행위에 지나지않는지도 몰랐다. 나는 결코 일하기를 싫어하는자가 아니다. 일을 얻기 위하여 내뺏은 노력하고 있다. (92~93)

이와 같은 면모는 신문광고가 한 줄의 아포리즘처럼 텍스트 내부에서 충돌한다. 소설 내부에 신문광고가 삽입되는 것은 “완전히 안도 아니고 완전히 바깥도 아닌”¹⁸⁾ 소설에 스며 있다. 소설의 담화는 사라지고 다른 이질적인 담화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된다. 따라서 신문담론 역시 소설의 이야기를 담당하는 권위를 갖게 되며, 이 새로운 양태 앞에서 텍스트의 모든 재료는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신문사설의 착종뿐만 아니라 ①~⑦까지의 각 장의 소재목들은 오히려 본문의 내용을 잘게 분절하는 듯 보인다. 제목이 갖는 분절성이 본문의 서사와 지속적으로 충돌되기도 하나 본문의 내용속에 돌입하여 텍스트 속의 또 다른 ‘중심’으로 작동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텍스트 내부의 일괄적인 명사의 나열을 오히려 통합하기도 하는 것이다. ③장의 제목인 “그들의부동산목록”이 바로 그러하다.

때문은 학생복, 소매깃이 달달은 ‘유까다. 세수수건이 두개. 얼음뱅이 책장, 원고자와 펜과 잉크와 만년필. 목은 잡지가 네권하고 책이 한권. (중략) 도마 식갈, 국자, 이집 문간에 놓인 ‘계다와 밀바닥이 뚫어져 안으로 마분지를 대어신는 구두가 한 켤레, 그리고 진수가 몸에 붙이고 나간것들과, 현재 순구가 두르고있는 물건들. 이상이 그들의 ‘부동산’의 전부인 듯 싶었다.(95)

명사와 명사의 연이은 나열들은 문장들은 소설속에서 뒤틀린 글쓰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생복, 유까다, 잡지, 구두와 같은 단어들은 ‘때문은’, ‘소매깃이 달은’, ‘목은’, ‘마분지를 대어 신는’과 같은 궁색한 단어들과 결합되어 있다. 낡은 생필품에 담긴 특정한 의미를 통해 주인공들의 생활 인식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궁핍함은 ‘그들의부동산목록’과 같은 3장의 제목을 통해서 텍스트의 연쇄성이 지속되고 있음이다. 『딱한 사람들』의 경우 1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소재목들은 이 소설의 큰 제목과의 조화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1장부터 7장에 이르는 각 소재목사이들 사이에

18) Randa Sabry, 앞의 책, 412면.

알력, 중첩, 경쟁 관계가 창출되며, 이로 인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잉되는 양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기표들은 오히려 상투성을 벗어나 텍스트의 유동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설속에 삽입된 소재목의 담합 양상은 대화노트를 끼고 경성을 배회하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직접 담론의 범위를 넘어서 그를 둘러싼 작가의 문맥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혼성 구문이 소설 속에 개입하며, 이들은 항상 대화하고 있다¹⁹⁾는 명제를 상기할 경우 「어머니는」, 「아들은」, 「구보는」, 「여자는」, 「그 사나이와」, 「여자를」, 「구보와 벗과」와 같은 소재목의 특이성은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재목으로 명시됨으로써, 이 소설은 다양한 인물 군상을 바라보며 사유를 전개시키는 구보의 철학이 소재목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이란 소재목을 살펴보자. 이 부분은 제목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구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이 일관되게 스며있다. 그녀는 “다시 비누질을 하며, 대체, 그애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건가,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 전적으로 장가를 가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중심이 놓여 있기 때문에, “돈한푼 없이 어떻게 기집을 먹여 살립니까?”라는 구보의 답변에도 그녀는 말줄임표로 일관된 모습이지만, 구보의 행동하나하나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들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구보의 모습이기에 어머니의 목소리로 삽입되어 있다. 구보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어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와 시선을 제목과 연관지었다. 따라서 ‘부제’나 ‘제목’이 소설의 결텍스트(para-text)의 역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재목의 역할이 없다면, 이 소설은 주어가 생략된 미완의 텍스트밖에 되지 않는다. 즉,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소재목들은 중심논지를 제목으로 선언하고, 이 제목들이 소설의 줄거리와 비등한 역할로 자리잡는 현상이 일어난다.

19) M. Bakhtin,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135면.

소재목들의 경합 양상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읽는데 일시적인 휴지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나, 소설 읽기를 보류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면으로 자리잡는다. ‘휴지’는 강력한 지연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시간의 변화를 느리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구보의 사유는 결국 ‘소설쓰기’라는 명제로 드러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구보가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엽서 쓰기’라는 형식을 빌어 나타낸 것으로서, 그의 소설에 성찰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지 오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었고,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줄 따름의 벗에게까지, **문득** 구보는 그리움을 기지려 한다.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그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려썼다 ...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띠며, 이것은 한 개 단편소설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하였다. 어떠한 단편소설의-. 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305~306)

구보는 또 다시 상념에 빠진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미 구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상태이다. 구보가 앓고 있는 중이염, 신경약화, 시력둔화와 같은 병들이 그의 삶의 무중력 상태를 예시해주고 있다. 구보는 ‘문득’ 그의 육체적 감각의 둔화와 정신의 고달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단편 소설’ 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마주친다. 이 소설은 2장에서 언급한 방란장 주인의 결말 방식과 유사하게 ‘문득’이라는 부사어와 함께 조응됨으로써,²⁰⁾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소설가 소설에 대한 의문들이

20) 방란장 주인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문득’이란 부사는 박태원 소설을 읽는 핵심적인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③에서 나타난 ‘문득’이란 부사가 나타난 이후부터 방란장 주인은 소설 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발현된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소설 쓰기를 하는 부러워하는 방란장 주인이 본 것은 중년 부인의 히스테리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수경선생의 모습이었다. 이는 박태원 스스로 자신에게 가한 야유의 성격이 짙은 메타 텍스트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증거한다.

저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러한 에세이적 방식은 경성을 배회하는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와 상충되는 면을 야기한다. 위의 인용문은 근대도시의 풍경과 삶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구보의 모습과 소설쓰기를 걱정하는 구보의 모습은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두개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보가 ‘문득’ 갖는 ‘그리움’으로 소설쓰기를 결심하는 이 이야기는 종로와 황금정, 본정과 같은 경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구보” 중심의 서사와 소설쓰기에 대한 “소설가 구보”의 자의식이 겹쳐지는 부분으로, 에세이로 확장되는 여담적 성격은 이 글의 의도가 구보가 경성을 걷는 데에 초점이 두어 있는지, 혹은 소설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그 중심부의 서사를 확연히 드러내지 않는다. 본질적인 서사를 전복하는 에세이의 기능이 심화된 것으로 오히려 이 장면은 구보의 “소설쓰기”에 대한 결심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좋은 소설 쓰시오.”라는 말에 조그만 행복을 느끼는 구보의 모습에서 경성을 관찰하는 산책가의 모습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나타나는 장르적 교호 양상이 소설의 중심부와 탈중심부를 역동적으로 해체하면서 재구성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V. 소문의 개입과 현재적 시제

이질적인 담론 양상들이 경합을 벌이는 모습은 박태원 소설에 다양한 담론의 모습을 유도하였다. 문체는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언어적 실험이 그가 지속적으로 묘사한 공간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박태원 소설에서 결정적으로 서사를 추동시키는 공간은 다방, 경성, 빨래터와 같은 곳들이다. 수다와 소문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문체에 나타난 수사적 성격의 특이성을 뒷받침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천변풍경』은 「청계천 빨래터」 장면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곳이다. 천변에 가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미루어 짐작”하는 어투의 문장이 많다.

① 그런데 글세, 누구 애길 들으니까말야 (강조: 인용자, 11면)

② 하여튼 남의 일이나마, 그 안되지 않았우? 그 양반이 원래가 서울 태성이라는데, 더구나 한참 당년에 남 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일조일석에 그 꼴이 되더니 (후략) (강조: 인용자, 11면)

“누구 애길 들으니까 말야” 혹은, “~라던데”라는 짐작의 어투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갖는 발화의 책임을 무화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도 이들의 이야기 초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발화의 중심이 한 사람에게 놓여 있지 않고, 빨래터에 모인 사람들의 소문의 공유로부터 서사가 이끌어지기 때문이다. 빨래터뿐만 아니라, 이발소 역시 이 소설에서는 소문의 정보가 흘러나오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최재서는 “빨래터가 女人들의 뉴스 交換所인것과 마찬가지로 이골은 남자들의 生活感情의 清算所이다.”²¹⁾라는 평을 하였다. 이는 박태원이 “주관의 몬지가 안지안토록 恒常操心”²²⁾하였다라는 그의 평가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천변풍경』은 여러 명의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의 담론적 힘을 한명의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에게 그 무게들을 부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대화는 저절로 조직되면서 정보 교환의 충동은 이 소설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문은 맞던 틀리던 관찰된 현실과 연관된다. 제1장의 빨래터에서 나온 여인들의 수다와 맞물려, 단하나의 인물만 등장하는 「이발소의 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이발소의 소년은 천변과 광고 모퉁이에 사는 이들에 대한 무수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실제로 증년 신사, 기미코, 땅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이 글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소년의 발화에서 그 정보의 권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 무근의 이야기는 항상 시의성 있는 현재 화법으로 존재한다.²³⁾

21)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대하여」,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04면.

22) 최재서, 위의 책, 103면.

23) Hans-Joachim, Neubauer, 『소문의 역사』, 박동자·황승환 역, 세종출판, 2001, 17

박태원은 천변풍경에서 인물의 제시를 주로 혼잣말이나 인물 상호간의 대화체로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은 면모는 ‘현재시제’를 강화한 수법으로 보여진다. 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가감없는 감정의 제시를 위해 제시된 현재 시제들은 천변을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설에 끌어 오므로써 그 내용의 풍부함에 대한 적극적인 기제로 형상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천변 풍경』은 현재시제와 말줄임표로 일관된 문체적 특징이 있다. 특정한 인물의 담론에 의거하지 않고 작가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박태원이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장거리 문체, 소재목의 삽입, 에세이체는 빨래터나 여성의 수다, 다방과 같은 곳에 떠도는 소문을 인용하는데 효과적인 문체이다. 이 글은 그의 작가적 성격에 대한 대답을 문체론을 통해 재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V. 결 론

이 글은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문체 연구를 통해 작품들의 문체적 현상을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인 박태원 소설의 주제의식까지 되짚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박태원은 경성의 모습을 산책하면서 그 위치적 감각을 복원해 놓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과 같은 소설을 썼다. 박태원 특유의 공간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은 1930년대 여타의 모더니즘 작가와는 대별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의 소설에 나타난 ‘여담’들은 이러한 작가적 자의식을 설명하는 중심 논리이다.

그간 박태원 소설에는 장거리 만연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묘사·기교·스타일을 중시여기는 박태원 고유의 글쓰기 전략일 수 있다. 방관장 주인이 가장 특이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단편소설 한편의 분량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한 모습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방관장 주인은 총 4번의 ‘문득’이라는 부사어가 등장한다. 이 소설을 독해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하는 부사어는 방관장 주인 사유가 적극적으로 변

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애 문제에 대해 골몰하다가, 경제적 무능에 대한 자조의 모습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소설쓰기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개 양상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주제와 주체 이탈의 경계 자체가 소멸되면서 마치 미로에 빠진 듯한 언표 행위의 분열이 일어난다. 이 소설의 줄거리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다. 이는 작가 특유의 과잉된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선조적인 진행방식을 방해하는 일탈행위는 오히려 다양한 담론이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박태원 소설 특유의 에세이적 진행방식을 도와주는 역동적인 기제로 파악된다.

『딱한 사람들』에 나타난 신문광고의 수용이 바로 그것이다. 신문 광고의 사용은 텍스트의 완전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모습으로 존재한다. 소설의 이야기를 담당하는 권위로 살아있는 이러한 이질적인 텍스트 담화들은 소설내부에서 또 다른 ‘중심’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소재목과의 경합 양상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소재목들은 소설읽기에 대한 일시적인 휴지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나, 소설 읽기를 보류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여담들은 문장에 이완의 기능을 주고, 또 다른 소설적 형식으로 서게 만든다. 이는 『천변풍경』에 나타난 공간들이 빨래터, 혹은 이발소를 묘사하는 보다 구체적인 문체적 성향으로 자리잡는다. “미루어 짐작”하는 어투와 소문의 “현재적 화법”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수의 인물의 담화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자리잡는다. 주인공이 없는 이 소설은 서로 다른 목소리의 공존이 빚어지는 텍스트의 힘으로 새로운 소설적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공간들이 빨래터나, 여성의 수다, 다방과 같은 곳을 지향하는 그의 소설적 성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서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한국근대 장편소설 대계』 3, 태학사, 1988.

2. 단행본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정현숙, 『박태원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조용만, 『30년대의 문화 예술인들』, 범양사, 1988.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황도경,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Bakhtin, M.,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Bal, Mieke, 『서사란 무엇인가』, 한용환·강덕환 역, 문예출판사, 1999.

Neubauer, Hans-Joachim, 『소문의 역사: 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목소리』,
황승환 역, 세종서적, 2001.

Sabry, Randa, 『담화의 놀이들』, 이충민 역, 새물결, 2003.

3. 논문

김윤식, 「박태원론 -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관련양상」, 『한국현대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_____, 「고현학의 방법론」,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3

천정환, 「박태원 소설의 서사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최혜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